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석 준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Ⅱ를 중심으로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이 윤 경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Ⅱ를 중심으로

노 석 준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이 윤 경

인 준 서

이윤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0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진로는 특정 시점에만 발달되고 선택해야 하는 과업이 아니라 생애발달단계 전반에 걸쳐 발달되고 선택해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학령기 중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또는 대학진학을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시 선택한 전공분야에 의해 미래의 직업이 결정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발달과업에 부합하는 진로성숙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성숙 수준의 변화가 매우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진로성숙은 개인, 가정, 학교 등의 관련 변인들 간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2016년)의 고등학교 2학년 단일 코호트(10,558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관련, 학교관련, 가정관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크게 진로성숙, 진로탐색행동으로 구분하였다.

1단계에서는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1단계+2단계).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1단계+2단계+3단계). 다음으로, 독립변인의 각 하위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성숙에 대해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과 학업효능감, 진로활동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와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과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희망교육수준에 대해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학업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희망전공 선택에 대해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희망전공정보에 대해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미래직업 결정에 대해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미래직업정보에 대해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9
1. 진로성숙	9
2. 진로성숙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2
가. 개인관련	12
나. 가정관련	15
다. 학교관련	18
3. 진로탐색행동	20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변수처리	24
가. 개인관련 변인	24
나. 학교관련 변인	25
다. 가정관련 변인	26
라.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 변인	27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29
IV. 연구결과	32

1. 진로성숙에 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2
2.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6
가.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6
나.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40
다.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43
라.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47
마.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51
3. 진로성숙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54
가. 진로성숙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4
나. 진로성숙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5
다. 진로성숙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6
4.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58
가.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58
나.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61
다.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64
라.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67
마.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70
V. 결론 및 논의	74
1. 요약	74
2. 논의	78
참고문헌	85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I-1> 개인관련 변인 관련 선행연구 정리	14
<표 II-2> 가정관련 변인 관련 선행연구 정리	17
<표 II-3> 학교관련 변인 관련 선행연구 정리	19
<표 II-4>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
<표 III-1> 연구대상 배경	23
<표 III-2> 개인관련 전체변인	25
<표 III-3> 학교관련 전체변인	25
<표 III-4> 가정관련 전체변인	27
<표 III-5> 진로성숙 문항 및 신뢰도	28
<표 III-6>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 전체 변인	29
<표 III-7> 상관분석 결과표	30
<표 IV-1> 진로성숙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3
<표 IV-2>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7
<표 IV-3>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40
<표 IV-4>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45
<표 IV-5>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49
<표 IV-6>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53
<표 IV-7> 진로성숙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5
<표 IV-8> 진로성숙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6
<표 IV-9> 진로성숙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7
<표 IV-10>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8
<표 IV-11>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59
<표 IV-12>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0
<표 IV-13>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2
<표 IV-14>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3
<표 IV-15>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3
<표 IV-16>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4
<표 IV-17>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5
<표 IV-18>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6
<표 IV-19>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8

<표 IV-20>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9
<표 IV-21>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69
<표 IV-22>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71
<표 IV-23>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72
<표 IV-24>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73

그림 목 차

[그림 Ⅲ-1] 연구 절차	31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일자리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기계와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일자리, 융합기술이 필요한 일자리,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저숙련 직업군에서는 고용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이에 따라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진로활동은 성인이 되기 직전 대학진학, 취업과 같은 중요한 결정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백선희·심우정, 2018). 허균(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가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시점이 처음으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시기는 본인의 진로고민이 가장 심화되는 시기이며, 졸업 후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계열에 상관없이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환경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대학진학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적으로도 2018년도 취학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67.6%가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교육부, 2018).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대학진학 시 계열선택과 진학결정 역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부모의 의견이나 성적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기이해와 적성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또한,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진로목표 부재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을 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더 나아가, 비록 취업을 하더라도 잘못된 진로결정에서 오는 전공불일치로 인한 조기 퇴직과 미스매치, 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잦은 이직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회적 기회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상급학교 교육과 일자리 선택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진로탐색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학교 시기에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강화하고자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 및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 중 하나를 진로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찾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0년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부터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부에는 진로교육정책과 신설하였고, 국가수준의 학교교육과정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현실성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를 통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자 학교급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계획을 담고 있다(교육부, 2016).

이와 같은 진로정책은 정부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제공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를 위한 교과 이외의 진로교육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성숙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은 동일 연령층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한정현·조현희, 2018; Crites, 1976). 이에 학생들이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진로성숙 수준은 진로발달의 핵심적 요소로서, 진로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를 계획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진로성숙 과업은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진로발달의 행동적 측면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과 직업세계 및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활동인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진로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탐색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탐색행동은 진로 및 취업지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소연, 2012; 정혜영, 2005; 조윤희, 2016).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대학 진학 방식이 다양화되고 진로에 대한 준비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구조가 점점 세분화됨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수정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차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변화의 폭이 매우 큰 시기이다.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진로성숙도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변인을 개인, 가정, 학교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체계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환경과 접목시키며 해석하려는 학문적인 접근방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유기체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그리고 거시체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간의 상호의존적인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한다고 본다(Bronfenbrenner, 1979; 1986; 1994). Kemp(1998)는 Bronfenbrenner(1979)의 다섯 가지 생태체계를 개인(individual), 가족(family), 사회(community or society)체계를 포함하는 세 가지 생태환경체계로 단순화하였다. 개인체계는 개인의 특성과 행동, 인성 등의 개인적 수준의 변인을 포함하며, 가족체계는 가족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변인을 포함하고, 사회체계는 개인과 가족이 속해있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등을 해석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 생애발달단계 동안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탐색과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진로성숙도와 진로탐색행동은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하나의 적용과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태체계이론은 고등학생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진로성숙도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탐색행동은 가정요인(김기현·유홍준·오병돈, 2014; 노혁, 2006; 정주원, 2016) 또는 학교요인(김나라·방재현·정진철, 2012; 김장희·정성수, 2012; 김효선·양승호, 2012; 백선희·심우정, 2018), 개인요인(김도연, 2011; 김민정, 2018; 조세연·김기찬, 2014)의 어느 하나로 탐색되거나 개인요인·학교요인(전현정·정혜원,

2018; 정주원, 2014), 개인요인·가정요인(박완성, 2007; 신선아, 2015)으로 탐색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은 개인, 가정, 학교 등의 관련 변인들 간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다(남지영·김재철, 2018; 이정민·정혜원, 2016; 이현주, 2017; 정미나·노지은, 2016; 한희진 외, 2018).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의 흥미, 적성,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적인 환경 등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지위, 부모의 직업적 지위, 교육수준, 부모의 지지 등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관심을 받아 왔다. 또한, 다른 학령기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시기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학교유형에 따라 상이한 교육목적이나 교육환경을 가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고등학교 유형별 자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직업정보, 경험, 미래예측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진로역량개발 향상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한정현·조현희, 2018).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인의 각 하위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2016)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조사는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평가할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하여 구축한 패널 데이터이다(정상훈·김창근, 2017).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대한 학교진로교육 효과를 논의한 김경식·이현철(2012)의 연구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의 진로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길혜지 외 3인(2018)의 연구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

는 고등학교 2학년 단일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3과 고3으로 구성하였을 때 보다 표집 시 편의(bias)를 줄일 수 있고, 학교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학교유형별 학교효과와 고등학교 세부전공(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경험과 진학 및 진로경험,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마이스터고 정책, 선취업-후진학 정책, 산학일체형특성화고 정책 등의 새로운 교육정책의 성과를 위해 2010년도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2016)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인의 각 하위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1-1.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1-2. 진로성숙에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1-3.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 1-4. 진로탐색행동에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성별,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현장 체험 만족도)은 무엇인가?

- 2-1.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성별,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은 무엇인가?

- 2-2.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성별,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 변인(부모의 기대학력,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부모와 대화 빈도)은 무엇인가?

- 3-1.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 변인(부모의 기대학력,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부모와 대화 빈도)은 무엇인가?

- 3-2.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 변인(부모의 기대학력,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부모와 대화 빈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소재지,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은 무엇인가?

4-1.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소재지,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은 무엇인가?

4-2.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소재지,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

진로(Career)는 개인의 생애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해가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자아실현적인 측면에서 진학이나 취업, 직업의 선택만을 의미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이해 발달 정도를 진로성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진로성숙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Super(1957)는 진로성숙은 진로탐색기에서 쇠퇴기까지의 발달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성숙은 진로연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진로발달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처럼 성장기부터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쳐 발달하는 것이며, 개인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발달 단계를 성장기(Growth), 탐색기(Exploration), 확립기(Establishment), 유지기(Maintenance), 쇠퇴기(Disengagement)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각 단계의 발달과업을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단계에서의 상대적 준비 정도를 진로성숙(career maturity)으로 보았다. 발달단계 구분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기는 탐색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는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여가생활 등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면서 진로탐색을 시도하는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Super의 이론은 지나치게 자아개념을 강조하고 직업발달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의 직업발달을 생애발달 과정으로 보았으며, 생애발달 관점에서 진로발달 과정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발달이론 중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Super와 달리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보았으며,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일관성과 현실성, 태도와 능력을 종합하여 진로선택능력과 진로선택태도 영역으로 구성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를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선택 결과에 중점을 두어 측정된 Super와는 달리, 그의 CMI는 직업선택 과정에 중점을 두어 측정하였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진로성숙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 Foud(1998)는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관련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보았으며, Westbrook과 그의 동료들(Westbrook et al., 1985)은 진로성숙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소, 특성, 측면들의 총체로서, 이들은 상호 간에 공통점을 가지며, 적절한 진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진로결정, 진로행동, 진로 중요성,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 문제, 직업 가치에 대한 지식, 선호 직업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재인용). Gribbons &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 준비도로 보았다. 또한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다. Hoyt(1977)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여 자아와 직업을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로 보았다.

Ginzberg et al.(1951)은 진로발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생애 전반에 걸쳐 발달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진로발달 과정을 환상기(6~10세), 잠정기(11~17세), 현실기(18~22세)와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시기는 잠정적 선택 단계(11~17세)에 해당하고, 하위단계 중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는 보다 폭넓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내·외적 요인 등에 대해 고려하며, 자신의 직업적 포부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포부를 구체화해 나간다. Gottfredson(1981)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을 축소해 나가는 제한과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 입문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장애요인 등에 대한 절충과정을 통해 직업포부의 정체성을 성립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힘 지향성 단계(3~5세), 성역할 지향성 단계(6~8세), 사회적 가치 지향성 단계(9~13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단계(14세 이상)과 같이 총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시기는 마지막 4단계인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 적성, 흥미 탐색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타인에 대한 지각을 형성해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단계들과 달리 어떤 선택을 가장 선호하고 어떤 선택이 수용되는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진로성숙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는 진로성숙을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김효선·양승호(2012)는 진로성숙을 청소년들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자신의 직업적 선호와 적성을 잘 이해하고 미래의 희망직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김말선(2012)은 진로성숙을 진로선택 시 개인의 결정성, 목적성, 독립성, 확산성, 준비성 등의 태도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임지윤(2018)은 진로성숙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이해에 기반을 두어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발달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계획해 나가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진로성숙에 대한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요약하면, 진로발달의 과정과 선택은 생애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며, 주도적인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발달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해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로성숙은 전 생애에 걸쳐 구축되며, 개인마다 진로성숙의 발달은 차이를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

소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상태에서 학업성적이 진로를 좌우하고 있다. 더불어,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진로성숙 발달과정에 있어 본인의 가치관이나 의지에 의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부모와 같은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도탈락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진로발달 과정에 있어 과도기를 겪는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독립적으로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진로성숙은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전현정·정혜원, 2018).

2. 진로성숙 영향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대별해 보면, 개인 관련, 가정 관련, 학교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개인관련

성별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우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성숙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경령, 2001; 정윤경, 2005; 이정민·정혜원, 2016)가 있으나,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성경, 2008; 김기현·유홍준·오병돈, 2014; 김종성·이병훈, 2010; 김희수·김옥희, 2007; 신선아·전종설, 2015)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노영남, 2007; 이성도, 2002; 이은아, 2007; 조아미, 2002)도 있다.

서울교육중단연구 패널데이터를 성장혼합모형으로 살펴본 이정민·정혜원(201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반면, 청소년 패널자료 4차년도를 이용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희수·김옥희(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 성별간의 상관관

계에서 여성일수록 진로성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김기현·유홍준·오병돈(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매우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진로성숙에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아미, 2002).

또한, 자아효능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 또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ckett & Betz(1981)는 진로성숙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아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선택과 자아효능감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Lent & Hackett(1987)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자아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는 연구결과가(김경식·이현철, 2012; 김도연, 2011; 김효선·양승호, 2012; 신선아·전종설, 2015)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도연(2011)은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조명실·최경숙(2007)도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선아·전종설(2015)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업성취도 또한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장희·정성수, 2012; 오현석 외, 2010; 이인자, 2002; 최윤정·김지은, 2012; 홍후조·안영수, 2001). 이인자(2002)는 진로성숙과 학업성취도는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했다. 김장희·정성수(2012)는 흥미·전공 일치도와 진로성숙도는 각각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두 변인 중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오현석 외(2010)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황매향·임은미(2004)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진로성숙도와 학습 동기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와 학습동기가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진로지도활동, 진로체험활동, 취업지원활동과 같은 진로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식·이현철, 2012, 김성경, 2008; 김진원·모영민, 2018; 임현정·김난옥, 2011; 주현준·이쌍철, 2014). 김경식·이현철(2012)은 학교진로교육 활동이 미래직업이해 수준의 초기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율과 이차곡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주현준·이쌍철(2014)은 중·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학생일수록 진로계획 및 직업결정을 위한 계획성이 높아졌으며, 진로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진로선택 시 자기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진로교육은 직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반면, 김효선·양승호(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평균차이나 변화 및 성장의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표 II-1> 개인관련 변인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연도)	내용
이정민·정혜원(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교육중단연구 패널데이터(4~6차년도)를 활용하여 분석함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저수준-감소후 증가형'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김희수·김옥희(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패널데이터(4차년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여성일수록, 성의식이 낮을수록 진로성숙이 높게 나타남
김기현·유홍준·오병돈(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 횡단조사 패널데이터 중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진로성숙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아미(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차이를 분석함 성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김도연(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확신성,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조명실·최경숙(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신선아·전종설(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김경식·이현철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진로교육 활동이 미래직업이해 수준의 초기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율과 이차곡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현준·이쌍철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학생일수록 진로 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계획성이 높아졌으며, 진로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진로선택 시 자기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진로교육은 직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김효선·양승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평균차이나 변화 및 성장의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인자(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성숙과 학업성취도는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김장희·정성수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전공 일치도와 진로성숙도는 각각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두 변인 중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오현석 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황매향·임은미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권의 학생들의 경우 진로성숙도와 학습 동기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업 성취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와 학습 동기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고 나타났음

나. 가정관련

가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환경이며, 청소년기는 생애발달 특성상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정보적 지원 등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부모의 지지는 진로성숙을 촉진하게 한다(김수리,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정보를 찾는 것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란·한수정, 2018; 신희경·김우영, 2005; 오영석, 2012; 정윤경, 2005; 정주원, 2016). Otto(2002)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자신의 부모와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 흥미와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진로계획에 대해 말할 때 가장 협조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어머니로 꼽았다고 하였다(김설아, 2010 재인용).

김미란·한수정(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족들과 진로상담을 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신희경·김우영(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을 위한

부모와의 대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부모와 같이 정보를 찾는 것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오영석(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지지 관계가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정주원(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보적·정서적·물질적 지지는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수준 역시 진로성숙을 위한 주요변수로 고려되고 있다(노혁, 2006; 송민경, 2009; 이민희, 2012; 정미나·노지은, 2016; 정윤경, 2005; 최수정, 2007).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출로 인해 필수 생활비용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그 결과, 학업성취 수준이 저하되며,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노혁(2006)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수준도 높아지며, 상위집단보다는 중·하위집단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했다. 정윤경(2005)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반드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다. 최수정(2007)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로성숙수준 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부모의 학력 또한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진로성숙과 상관관계(노혁, 2006; 문미경·민현주·한성숙, 2018; 송민경, 2009; 이민희, 2012)를 가지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서열이 높은 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인희, 2003; 방하남·김기현, 2003). 문미경·민현주·한성숙(201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은 직업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고졸이하 학력보다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높게 보고되었다. 이민희(201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진로·직업태도와 진로탐색행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송민경(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은 진로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학업성취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며, 본인이 희망과는 관련이 없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향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직업이나 기대학력이 자녀의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정혜연(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기대가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적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각한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결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이선(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가정관련 변인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연도)	내용
김미란·한수정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족들과 진로상담을 한 경험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남
신희경·김우영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육고용패널 I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와의 대화와 더불어 부모와 같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오영석(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심리적지지 관계가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진로정보제공보다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가 수동적인 진로상담을 하며,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주원(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 지지는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노혁(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수준도 높아지며, 상위집단 보다는 중·하위집단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1차년도 자료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2차년도 자료에서는 중위집단으로 가면서 평균값이 낮아지다가 상위집단으로 가면서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정윤경(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반드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최수정(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진로성숙수준 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문미경·민현주·한성숙(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학력은 직업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고졸 이하 학력보다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이민희(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태도의 하위 영역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수준 모두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정혜연(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진로기대는 진로결정에 유의미하지만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적성기대는 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최이선(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기대지각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 학교관련

청소년기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진로성숙 및 발달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내에서도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관련 변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학교관련 변인의 경우,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진로교육프로그램 및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김성경(2008)의 연구에서는 인문계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보다 진로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정윤경(2005)은 일반계고 학생들이 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진로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인문계고 학생들의 진로성숙이 대체로 높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소연(2012)의 연구에서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인문계고 학생들보다 진로탐색행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국교육고용패널 II를 활용한 최보금(2018)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반면, 외교(국제고)와 과학고에 소속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세연(2012)의 연구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의 진로성숙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고, 특성화고 순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II-3> 학교관련 변인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연도)	내용
김성경(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계열별 및 성별로 분류하여 분석함 인문계열 여학생, 인문계열 남학생, 전문계열 여학생, 전문계열 남학생 순으로 진로성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윤경(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육고용패널 I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계고 학생이 실업계고 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음
김소연(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유형은 진로의사결정유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더 활발하게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보금(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육고용패널 II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반면 외고(국제고)와 과학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세연(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직업태도 수준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고와 특성화고가 비슷한 수준을 보임. 진로준비행동 수준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고, 특성화고 순으로 나타남. 진로·직업역량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고, 특성화고 순으로 나타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들을 포함해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개인, 가정, 학교 관련 변인들을 정리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		요인
개인	특성	연령, 성, 능력, 적성, 지능, 흥미, 자아개념, 신체적 조건, 학문적 욕구, 진로관, 가치관 등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일탈 경험, 동아리활동
가정	구조적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경제력, 종교, 문화시설, 형제 수, SES, 결혼가정 여부, 가정학습 분위기, 가족 내 서열, 결혼계획 등
	사회심리적	부모와 본인의 교육포부, 부모의 관심과 격려, 중요한 타자의 영향,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형제관계 등
학교	물리적, 구조적	학교시설, 진로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학년, 학교계열
	사회심리적	교우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교사와의 친밀도, 학교분위기(학교풍토, 학급풍토) 등
	성취	학업성취(인지적, 정의적)
직업	직업세계의 변천, 고용시장, 봉급수준, 직장환경, 보너스, 발전가능성, 휴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 직업명성 등	

자료: 김경식·이현철(2007), p.98. 재인용.

이미 살펴본 내용과 같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은 특정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적 요인과 학교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에 포함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진로탐색행동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이다(Erikson, 1968). 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이 아무리 성숙되어 있다 하여도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준비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진로성숙의 과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진로탐색활동은 보다 높은 진로의사결정을 수립하기 위한 자신과 환경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Jordaan(1964)은 진로탐색에 대한 개념을 진로탐색행동으로 발전시켰으며, 진로탐색행동을 희망직업을 선택·준비하고, 입사 후 적응하며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Stumpf, Colarelli, & Hartman(1983)은 진로탐색행동을 진로발달이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세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인지적·행동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Flum & Blustein(1999)은 진로탐색행동을 자신을 이해하고 교육 및 직업과 관련된 기회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추후 진행된 Flum & Blustein(2000)의 연구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개념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하는 활동, 실제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한 동기 및 태도,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는 탐색기술의 3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진로탐색행동을 특정 직업을 선택, 취업활동, 직업에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기평가 및 외부탐색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진숙(1998)은 진로탐색행동을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과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Gottfredson(1981)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을 축소해 나가는 제한과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 입문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장애요인 등에 대한 절충과정을 통해 진로의 정체성을 성립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힘 지향성 단계(3~5세), 성역할 지향성 단계(6~8세), 사회적 가치 지향성 단계(9~13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단계(14세 이상)와 같이 총 4단계에 나누어 설명하였다. 고등학생 시기는 그 중 4단계(14세 이상,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 해당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가장 선호하고 어떤 선택이 수용되는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Ginzberg et al(1951)의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고등학생 시기는 잠정적 선택 단계(11~17세)에 해당하며, 보다 폭넓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내·외적 요인 등에 대해 고려하며, 자신의 직업적 포부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구체화해 나간다.

진로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이 사용되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념화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써의 행위로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준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계현(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취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적인 취업 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진로탐색행동은 크게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탐색은 여러 가지 진로심리검사 혹은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인의 직업적성, 흥미, 직무능력 등을

탐색하는 방법과 교사나 부모님, 선후배, 또래, 친인척 등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본인의 흥미, 적성, 직무능력 등을 탐색하는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 가지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업체의 채용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탐색은 고용센터나 학내 취업지원센터, 취업전문사이트 등과 같은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본인의 희망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턴십, 봉사활동 또는 선후배, 지인, 가족, 기업체 채용담당자 등과의 대화를 통한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함에 있어 취업과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진로탐색활동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진로를 변경하거나 취업 후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발달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탐색활동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며, 단순한 정보탐색뿐만 아니라 탐색과정에 있어 느끼는 만족감, 효능감, 심리적 부담감, 탐색 결과에 대한 기대감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강명숙, 201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2016년)의 고등학교 2학년 단일 코호트(10,558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은 고등교육경험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고등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과정, 분석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는 고등학교 소재지를 서울 외 15개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도(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남, 제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등학교 외 7개교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표 III-1> 연구대상 배경

	구분	빈도	퍼센트	합계
성별	남성	5,583	52.9	10,558(100%)
	여성	4,975	47.1	
고등학교 소재지	도	3,685	34.9	10,558(100%)
	광역시	2,305	21.8	
	수도권	4,568	43.3	
고등학교 계열	일반고등학교	5,943	56.3	10,558(100%)
	특성화고등학교	2,595	24.6	
	특수목적고등학교	2,020	19.1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583명(53%), 여성 4,975명(47%)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소재지에서는 수도권 4,568명(43.3%), 도 3,685명(34.9%), 광역시 2,305명(21.8%)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등학교 5,593명(56.3%), 특성화고등학교 2,595명(24.6%), 특수목적고등학교 2,020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수처리

가. 개인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개인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2016년) 조사의 ‘성별’ [학생용설문 개인적 특성 영역 Y16S13002], ‘자아효능감’ [학생용설문 개인적특성 영역, 6개 항목, 5점 Likert 척도], ‘학업효능감’ [학생용설문 학교생활 영역, 5개 항목, 5점 Likert 척도], ‘진로교육 및 활동만족도’ [학생용설문 학교생활 영역, 11개 항목, 5점 Likert 척도], ‘현장체험만족도’ [학생용설문 현장체험 영역, 4개 항목, 5점 Likert 척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효능감의 경우, 자신에 대한 질문 응답의 총합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47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및 활동경험 만족도의 경우, 응답의 총합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751로 나타났다. 현장체험 만족도의 경우, 응답의 총합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997로 나타났다.

<표 III-2> 개인관련 전체변인

항목	변수처리	
성별	• 0=남성, 1=여성(더미변수 처리)	
자아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질문' 5점 척도 • 6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학업효능감	• '교과 효능감' 5점 척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목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및 활동' 5점 척도, 11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Cronbach α=.751) • 진로활동 5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 진로체험 6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직업인 멘토특강
		현장견학 학과체험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진로캠프
현장체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 만족도' 5점 척도 • 4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전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미래 직업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서의 설명을 이해하기 쉬웠다 현장체험 이후 전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나. 학교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학교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2016년) 조사의 '고등학교 소재지', '고등학교 유형' [학생용설문 학교생활 영역 Y16S01001],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학생용설문 학습 및 사교육 영역 Y16S02057]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III-3> 학교관련 전체변인

항목	변수처리
고등학교 소재지	• 1=도, 2=광역시, 3=수도권(더미변수 처리, 준거집단: 수도권)
고등학교 유형	• 1=일반고, 2=특성화고, 3=특수목적고(더미변수 처리, 준거집단: 일반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 응답값 그대로 사용(1~20개)

다. 가정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2016년) 조사의 ‘부모의 기대학력’ [가구용설문 교육환경 영역 W16H02026], ‘부모의 기대직업’ [가구용설문 교육환경 영역 W16H02030C],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용설문 가구소득 및 지출 영역 W16H06001], ‘부모의 학력’ [가구용설문 남성보호자 영역 W16H04003, 여성보호자 영역 W16H05003],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학생용설문 학습 및 사교육 영역 Y16S0207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학생용설문 학습 및 사교육 영역 Y16S02071], ‘부모와 대화 빈도’ [학생용설문 가정생활 영역, 4개 항목, 5점 Likert 척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을 고졸 이하, 초대졸, 4년제 대졸, 석사, 박사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대졸이하(고졸 이하, 초대졸), 4년제 대졸, 석사이상(석사, 박사)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는 부모의 기대직업을 직업분류코드(KECO)의 세분류 코드를 사용하여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따라 제1차 산업(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과 같은 원시산업), 제2차 산업(공업, 광업 등과 같은 제도가공산업), 제3차 산업(서비스업 및 정보·지식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소득은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8)의 각 분위별 경상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1분위(1,238,216원), 2분위(2,769,688원), 3분위(4,101,592원), 4분위(5,544,908원), 5분위(9,324,318원)로 구분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는 부모의 학력을 무학 외 7개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대졸이하(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4년제 대졸, 석사이상(석사, 박사)로 구분하였으며,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와 대화 빈도의 경우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 제공한 항목 중 학교생활을 제외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 응답의 총합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

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84로 나타났다.

<표 III-4> 가정관련 전체변인

항목	변수처리		
부모의 기대학력	• 1=초대졸이하, 2=4년제 대졸, 3=석사이상 (더미변수 처리, 준거집단: 4년제 대졸)		
부모의 기대직업	• 1=1차 산업, 2=2차 산업, 3=3차 산업, 0=미분류		
월평균 가구소득	• 1=1분위, 2=2분위, 3=3분위, 4=4분위, 5=5분위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 응답값 그대로 사용(1,000~2,000,000원)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 응답값 그대로 사용(1~10개)		
부모의 학력	• 1=초대졸이하, 2=4년제 대졸, 3=석사이상 (더미변수 처리, 준거집단: 4년제 대졸)		
부모와 대화 빈도	• '부모와의 대화' 5점 척도 • 5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흥미와 적성	Cronbach α=.884
		미래직업	
		학교 및 학과 선택	
		삶의 가치관	

라.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 변인

1) 진로성숙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2016년) 조사의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 [학생용 설문 학교생활 영역, 14개 항목, 5점 Likert 척도]을 사용하였다. 이들 응답의 총합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 내적 합치도는 .911로 나타났다.

임언·정윤경·상경아(2001)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의적 태도와 인지적 능력, 결정을 실행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과 행동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의 문항은 초·중등 진로 교육현황조사(장현진 외, 2016)와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교육과학기술부, 2012)을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서, 학생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라는 점에서 진로성숙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았다(길혜지·백순근·양현경, 2018 재인용).

<표 III-5> 진로성숙 문항 및 신뢰도

구분	신뢰도 (Cronbach α)
1. 나는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다.	.911
2. 나는 일과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3.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윤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설명할 수 있다.	
5.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6.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7.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8. 나는 여러 가지 직업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9.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10.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11.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진로(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3. 나는 진로(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14.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2)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2016년) 조사의 ‘희망교육수준’ [학생용설문 진로계획 영역 Y16S07001], ‘희망전공 선택여부’ [학생용설문 진로계획 영역 Y16S08003], ‘희망전공정보’ [학생용설문 진로계획 영역, 3개 항목, 5점 Likert 척도], ‘미래직업 결정여부’ [학생용설문 직업의식 영역 Y16S11001], ‘미래직업정보’ [학생용설문 직업의식 영역, 3개 항목, 5점 Likert 척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에서는 희망교육수준을 고졸, 초대졸, 4년제 대졸, 석사, 박사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대졸이하(고졸, 초대졸), 4년제 대졸, 석사이상(석사, 박사)로 구분하였다. 희망전공정보의 경우, 응답의 총합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998로 나타났다. 미래직업정보의 경우, 응답의 총합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996로 나타났다.

<표 III-6>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 전체 변인

항목	변수처리		
진로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 5점 척도, 14개 문항(<표 III-5> 참고) 응답의 총합의 평균(Cronbach $\alpha=.911$) 		
진로탐색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교육수준' 1=초대졸이하, 2=4년제 대졸, 3=석사이상 • '희망전공 선택여부' 1=예, 0=아니오(더미변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전공정보' 5점 척도 • 3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업	Cronbach $\alpha=.998$
		요구되는 내신 및 수능점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직업 결정여부' 1=예, 0=아니오(더미변수 처리) 		요구되는 소질과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직업정보' 5점 척도 • 3개 문항 응답의 총합의 평균 	업무내용(하는 일)		Cronbach $\alpha=.996$
	전망 및 비전		
	임금(보수, 수입)		

독립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투입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관련, 학교관련, 가정관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크게 진로성숙, 진로탐색행동으로 구분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25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선형회귀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설명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계적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채택하였다. 김애희·윤종희·김리진(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변인과 가정관련 변인, 그리고 학교관련 변인이 종속변수의 총 변량의(total variation) 설명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김애희 외 2인, 2010). 이는 하위체계로부터 상위체계의 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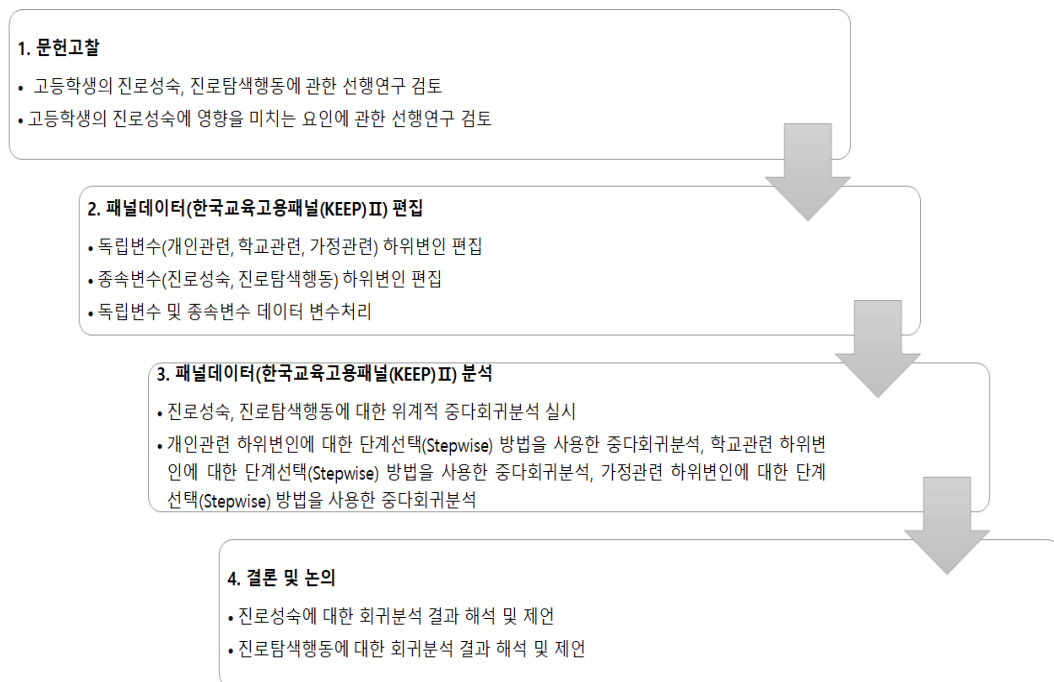
<표 III-7> 상관분석 결과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1																							
2	.274**	1																						
3	.277**	.154**	1																					
4	.246**	.419**	.984**	1																				
5	.338**	.132**	.464**	.321**	1																			
6	.384**	.141**	.465**	.325**	.991**	1																		
7	-.021*	.073**	.067**	.174**	.019*	0.017	1																	
8	.549**	.143**	.220**	.163**	.297**	.335**	-.099**	1																
9	.444**	.253**	.088**	.127**	.117**	.135**	-.056**	.322**	1															
10	.273**	.104**	.083**	.099**	.110**	.122**	.030**	.152**	.204**	1														
11	.242**	0.002	0.020	-.077**	.076**	.090**	-.077**	.151**	.197**	.397**	1													
12	.170**	.030**	.061**	-.020*	.062**	.069**	-.044**	.069**	.148**	.129**	.305**	1												
13	.217**	.522**	.135**	.357**	.102**	.106**	.043**	.119**	.201**	.080**	-.031**	0.014	1											
14	.052**	.030**	.085**	.119**	.115**	.115**	.109**	.021*	.023*	.020*	-.032**	-0.011	.081**	1										
15	.118**	.229**	.049**	.194**	.049**	.057**	0.008	.083**	.064**	.034**	-0.016	-0.007	.288**	0.014	1									
16	.157**	.299**	.050**	.184**	.053**	.060**	.024*	.094**	.128**	.030**	-0.001	0.018	.366**	.026*	.293**	1								
17	.141**	.263**	.052**	.156**	.050**	.057**	0.018	.086**	.119**	.028**	-0.010	0.014	.327**	0.014	.288**	.535**	1							
18	0.008	-.079**	0.011	-.075**	0.011	0.013	.076**	-0.011	-.052**	0.005	0.014	0.010	-.087**	0.006	-0.013	-.055**	-.040**	1						
19	-0.007	-.096**	0.009	-.093**	-0.006	-0.004	.084**	-.027**	-.044**	0.009	0.017	.023*	-.101**	0.008	-.028**	-.066**	-.050**	.841**	1					
20	.262**	.103**	.114**	.113**	.138**	.157**	.049**	.264**	.131**	.108**	.071**	0.018	.100**	.053**	.107**	.112**	.107**	.036**	.023*	1				
21	.029**	.086**	-0.001	.059**	0.002	0.006	.072**	-0.002	-0.011	-.023*	-.143**	-.111**	.107**	-.049**	.144**	.114**	.093**	.022*	.028**	.054**	1			
22	.102**	-.121**	-.041**	-.327**	-.028**	-.027**	-.135**	.086**	.086**	-.053**	.188**	.172**	-.118**	-.071**	-.103**	-.039**	-.017	.077**	.081**	-0.009	-.126**	1		
23	.069**	-.254**	-.078**	-.380**	-0.012	-0.008	-.096**	.036**	.067**	.030**	.229**	.156**	-.253**	-.085**	-.156**	-.136**	-.119**	.137**	.156**	-.026**	-.103**	.516**	1	
M	3.4630	1.8168	.8249	-5.3688	.6487	.6915	.4712	3.6856	3.1194	.6914	-1.3917	.6518	1.9797	2.3600	3.6716	1.4702	1.3348	.0985	.1203	2.7598	2.0836	1.6284	.5312	
SD	.61908	.67829	.38012	4.47976	.47741	4.22642	.49919	.67855	.69783	2.32314	2.61054	3.89208	.63928	1.19995	1.18022	.64240	.55373	.34541	.44165	.97301	.88021	.78499	.99450	

*p<.05, **p<.01, ***p<.001

1=진로성숙, 2=희망교육수준, 3=희망전공선택, 4=희망전공정보, 5=미래직업결정, 6=미래직업정보, 7=성별, 8=자아효능감, 9=학업효능감, 10=진로활동만족도, 11=진로채험만족도, 12=현장채험만족도, 13=부모의 기대학력, 14=부모의 기대직업, 15=월평균가구소득, 16=아버지학력, 17=어머니학력, 18=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19=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개수, 20=부모와 대화빈도, 21=고등학교 소재지, 22=고등학교 유형, 23=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본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III-1]과 같다. 1단계에서는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1단계+2단계).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1단계+2단계+3단계). 다음으로 독립변인의 각 하위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II-1] 연구절차

IV. 연구결과

1. 진로성숙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진로성숙에 대한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과 같다.

1단계에서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성별,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가 진로성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1018.816, 유의확률은 .000으로 진로성숙을 의미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41.3%(수정계수에 의하면, 41.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1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82, VIF(분산팽창요인) 계수는 최대가 1.301, Durbin-Watson 계수는 1.94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진로성숙}) = .043X_1 + .443X_2 + .261X_3 + .119X_4 + .056X_5 + .055X_6$$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가정관련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석사이상), 어머니 학력(석사이상), 부모와 대화 빈도가 진로성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진로성숙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p	β	t	p	β	t	p
성별	.043	5.147***	.000	.027	3.246***	.001	.031	3.762***	.000
자아효능감	.443	50.717***	.000	.411	46.511***	.000	.405	45.934***	.000
학업효능감	.261	29.355***	.000	.238	26.797***	.000	.231	26.051***	.000
개인 진로활동 만족도	.119	13.117***	.000	.107	12.007***	.000	.109	12.136***	.000
진로체험 만족도	.056	6.026***	.000	.068	7.340***	.000	.060	6.361***	.000
현장체험 만족도	.055	6.402***	.000	.057	6.664***	.000	.050	5.79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49	-5.643***	.000	-.045	-4.845***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051	5.717***	.000	.049	5.441***	.000
부모의 기대직업				.023	2.869**	.004	.029	3.589***	.000
월평균가구소득				.019	2.185*	.029	.016	1.784	.074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25	-2.494*	.013	-.021	-2.129*	.033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20	2.171*	.030	.020	2.169*	.030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06	.629	.530	.010	1.040	.298
어머니 학력 더미(석사이상)				.020	2.304*	.021	.022	2.497*	.013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36	2.976**	.003	.031	2.613**	.009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04	-.320	.749	-.001	-.064	.949
부모와 대화 빈도				.090	10.583***	.000	.090	10.729***	.000
고등학교소재지 더미(광역시)							-.018	-1.998*	.046
고등학교소재지 더미(도)							-.044	-4.862***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040	-3.764***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목고)							.039	3.954***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050	4.817***	.000
R^2	.413			.435			.441		
수정된 R^2	.412			.434			.440		
R^2 변화량	.413			.022			.006		
F	1018.816***			393.667***			311.923***		
F 변화량 유의확률	.000			.000			.000		
p	.000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1.941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393.667, 유의확률은 .000으로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43.5%(수정계수에 의하면, 43.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75, VIF 계수는 최대가 2.221, Durbin-Watson 계수는 1.94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진로성숙}) = .027X_1 + .411X_2 + .238X_3 + .107X_4 + .068X_5 + .057X_6 - .049X_7 + .051X_8 + .023X_9 + .019X_{10} - .025X_{11} + .020X_{12} + .020X_{13} + .036X_{14} + .090X_{15}$$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 중 월평균 가구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학교관련 변인 중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소재지(광역시),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진로성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

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소재지는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시일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이 특성화고일수록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목고 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많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311.923, 유의확률은 .000으로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변량의 44.1%(수정계수에 의하면, 44.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67, VIF 계수는 최대가 2.227, Durbin-Watson 계수는 1.94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진로성숙}) = .031X_1 + .405X_2 + .231X_3 + .109X_4 + .060X_5 + .050X_6 - .045X_7 + .049X_8 + .029X_9 - .021X_{10} + .020X_{11} + .022X_{12} + .031X_{13} + .090X_{14} - .018X_{15} - .044X_{16} - .040X_{17} + .039X_{18} + .050X_{19}$$

위 모델을 보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41.3%, 가정관련 변인이 2.2%, 학교관련 변인이 0.6%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 성별 순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부모의 기대직업, 어머니 학력(석사이상), 아버지 학력(석사이상),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순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소재지(광역시),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고등학교 소재지(도) 순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등학교 소

재지(광역시),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는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가.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2>와 같다.

1단계에서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성별,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가 희망교육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127.818,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교육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8.1%(수정계수에 의하면, 8.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1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82, VIF 계수는 최대가 1.301, Durbin-Watson 계수는 1.876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교육수준}) = .076X_1 + .072X_2 + .236X_3 + .064X_4 - .085X_5$$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가정관련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석사이상), 어머니 학력(초대졸이하),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가 희망교육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p	β	t	p	β	t	p
성별	.076	7.362***	.000	.053	5.823***	0.000	.043	4.852***	.000
자아효능감	.072	6.557***	.000	.034	3.493***	0.000	.028	2.983**	.003
학업효능감	.236	21.263***	.000	.142	14.562***	0.000	.149	15.555***	.000
진로활동 만족도	.064	5.658***	.000	.034	3.454**	0.001	.017	1.780	.075
진로체험 만족도	-.085	-7.240***	.000	-.032	-3.092**	0.002	-.005	-.473	.636
현장체험 만족도	.008	.736	.462	.009	.923	0.356	.014	1.536	.125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288	-29.863***	0.000	-.225	-22.662***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231	23.479***	0.000	.208	21.392***	.000
부모의 기대직업				.012	1.301	0.193	.007	.831	.406
월평균가구소득				.049	5.120***	0.000	.026	2.710**	.007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68	-6.095***	0.000	-.055	-5.073***	.000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29	2.935**	0.003	.028	2.934**	.003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41	-3.741***	0.000	-.031	-2.814**	.005
어머니 학력 더미(석사이상)				.006	.603	0.547	.007	.707	.480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43	3.223**	0.001	.035	2.674**	.008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74	-5.522***	0.000	-.028	-2.155*	.031
부모와 대화 빈도				.006	.673	0.501	.006	.637	.524
고등학교소재지 더미(광역시)							-.017	-1.814	.070
고등학교소재지 더미(도)							-.023	-2.317*	.021
고등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136	-11.739***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목고)							.022	2.108*	.035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117	-10.395***	.000
R^2	.081			.314			.349		
수정된 R^2	.080			.312			.347		
R^2 변화량	.081			.233			.035		
F	127.818***			233.765***			211.474***		
F 변화량 유의확률	.000			.000			.000		
p	.000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1.876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많을수록,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가 적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233.765,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교육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31.4%(수정계수에 의하면, 31.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58, VIF 계수는 최대가 2.256, Durbin-Watson 계수는 1.876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교육수준}) = .053X_1 + .034X_2 + .142X_3 + .034X_4 - .032X_5 - .288X_6 + .231X_7 + .049X_8 - .068X_9 + .029X_{10} - .041X_{11} + .043X_{12} - .074X_{13}$$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 중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학교관련 변인 중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희망교육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많을수록,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가 적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소재지가 도지역일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이 특성화고일수록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특목고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적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211.474,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교육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34.9%(수정계수에 의하면, 34.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44, VIF 계수는 최대가 2.321, Durbin-Watson 계수는 1.876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교육수준}) = .043X_1 + .028X_2 + .149X_3 + .017X_4 - .225X_5 + .208X_6 + .026X_7 - .055X_8 - .031X_9 + .035X_{10} - .028X_{11} - .023X_{12} - .136X_{13} + .022X_{14} - .117X_{15}$$

위 모델을 보면,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8.1%, 가정관련 변인이 23.3%, 학교관련 변인이 3.5%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학업효능감, 성별, 자아효능감 순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아버지 학력(석사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개수, 어머니 학력(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순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어머니 학력(초대졸이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소재지

(도),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순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3>과 같다.

1단계에서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가 희망전공 선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57.498,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 선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5.9%(수정계수에 의하면, 5.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1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89, VIF 계수는 최대가 1.213, Durbin-Watson 계수는 1.95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 선택}) = .086X_1 + .216X_2 + .044X_3 - .031X_4 + .050X_5$$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 중 진로체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가정관련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부모와 대화가 희망전공 선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

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p	β	t	p	β	t	p	
개인	성별	.086	6.505***	.000	.074	5.643***	.000	.071	5.352***	.000
	자아효능감	.216	15.403***	.000	.195	13.585***	.000	.196	13.698***	.000
	학업효능감	.009	.633	.527	-.012	-.812	.417	-.007	-0.480	.631
	진로활동 만족도	.044	3.128**	.002	.038	2.714**	.007	.029	2.075*	.038
	진로체험 만족도	-.031	-2.116*	.034	-.025	-1.754	.080	-.019	-1.337	.181
	현장체험 만족도	.050	3.639***	.000	.049	3.635***	.000	.053	3.905***	.000
가정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68	-4.945***	.000	-.049	-3.428**	.001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064	4.501***	.000	.066	4.548***	.000	
	부모의 기대직업			.057	4.341***	.000	.054	4.139***	.000	
	월평균가구소득			.017	1.216	.224	.015	1.046	.296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04	-.253	.801	-.004	-.249	.803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14	-.978	.328	-.014	-.995	.320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05	.290	.772	.003	.208	.835	
	어머니 학력 더미(석사이상)			.002	.110	.912	.000	-.015	.988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20	1.055	.292	.021	1.108	.268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09	-.462	.644	.009	.473	.636	
부모와 대화 빈도			.052	3.797***	.000	.055	4.002***	.000		
학교	고등학교소재지 더미(광역시)						-.009	-.618	.537	
	고등학교소재지 더미(도)						.025	1.736	.083	
	고등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050	-3.044**	.002	
	고등학교유형 더미(특목고)						-.042	-3.061**	.002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051	-3.196**	.001	
R^2		.059		.077		.086				
수정된 R^2		.058		.074		.082				
R^2 변화량		.059		.017		.009				
F		57.498		26.678		23.267				
F 변화량 유의확률		.000		.000		.000				
p		.000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1.951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전공 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희망전공 선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57.498,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 선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5.9%(수정계수에 의하면, 5.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82, VIF 계수는 최대가 1.220, Durbin-Watson 계수는 1.95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선택}) = .074X_1 + .195X_2 + .038X_3 + .049X_4 - .068X_5 + .064X_6 + .057X_7 + .052X_8$$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학교관련 변인 중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희망전공 선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전공 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은 희망전공 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목고일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 개수가 적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23.267,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 선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8.6%(수정계수에 의하면, 8.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77, VIF 계수는 최대가 1.609, Durbin-Watson 계수는

1.95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선택}) = .071X_1 + .196X_2 + .053X_3 - .049X_4 + .066X_5 + .054X_6 + .055X_7 - .050X_8 - .042X_9 - .051X_{10}$$

위 모델을 보면,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5.9%, 가정관련 변인이 1.7%, 학교관련 변인이 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성별, 현장체험 만족도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부모와 대화 빈도,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는 희망전공 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4>와 같다.

1단계에서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성별,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가 희망전공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134.027,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8.5%(수정계수에 의하면, 8.4%)가 모형에 포함된 독

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1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82, VIF 계수는 최대가 1.301, Durbin-Watson 계수는 1.84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정보}) = .172X_1 + .151X_2 + .093X_3 + .100X_4 - .142X_5$$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가정관련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부모와 대화 빈도가 희망전공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수족,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전공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높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는 희망전공정보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128.085,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20.0%(수정계수에 의하면, 19.9%)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75, VIF) 계수는 최대가 2.256, Durbin-Watson 계수는 1.84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p	β	t	p	β	t	p	
성별	.172	16.601***	.000	.152	15.537***	.000	.123	13.366***	.000	
자아효능감	.151	13.895***	.000	.119	11.367***	.000	.128	13.068***	.000	
학업효능감	.093	8.397***	.000	.032	3.001**	.003	.057	5.815***	.000	
개인	진로활동 만족도	.100	8.820***	.000	.075	7.102***	.000	.034	3.409**	.001
진로체험 만족도	-.142	-12.117***	.000	-.102	-9.237***	.000	-.036	-3.459**	.001	
현장체험 만족도	-.013	-1.167	.243	-.010	-1.010	.312	.021	2.211*	.027	
가정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213	-20.465***	.000	-.119	-11.691***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123	11.560***	.000	.105	10.495***	.000	
부모의 기대직업				.062	6.340***	.000	.044	4.810***	.000	
월평균가구소득				.071	6.795***	.000	.038	3.875***	.000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50	-4.175***	.000	-.038	-3.391**	.001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14	-1.288	.198	-.015	-1.469	.142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04	-.311	.756	-.001	-.084	.933	
어머니 학력 더미(석사이상)				-.004	-.420	.675	-.009	-.879	.380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35	2.419*	.016	.034	2.559*	.01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96	-6.655***	.000	-.037	-2.707**	.007	
부모와 대화 빈도				.029	2.916**	.004	.026	2.772**	.006	
학교	고등학교소재지 더미(광역시)						.005	.459	.646	
고등학교소재지 더미(도)							.036	3.594***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190	-15.898***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목고)							-.158	-14.441***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206	-17.750***	.000	
R^2	.085			.200			.310			
수정된 R^2	.084			.199			.308			
R^2 변화량	.085			.116			.109			
F	134.027			.128.085			177.177			
F 변화량 유의확률	.000			.000			.000			
p	.000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1.842

$$Y(\text{희망전공정보}) = .152X_1 + .119X_2 + .032X_3 + .075X_4 - .102X_5 - .213X_6 + .123X_7 + .062X_8 + .071X_9 - .050X_{10} + .035X_{11} - .096X_{12} + .029X_{13}$$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장체험 만족도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학교관련 변인 중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희망전공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수족,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낮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희망전공정보에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석사이상일수록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높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는 희망전공정보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소재지가 도지역일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은 희망전공정보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유형이 특목고일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 개수가 적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177.177,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31.0%(수정계수에 의하면, 30.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67, VIF 계수는 최대가 2.321, Durbin-Watson 계수는 1.84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정보}) = .123X_1 + .128X_2 + .057X_3 + .034X_4 - .036X_5 + .021X_6 - .119X_7 + .105X_8 + .044X_9 + .038X_{10} - .038X_{11} + .034X_{12} - .037X_{13} + .026X_{14} + .036X_{15} - .190X_{16} - .158X_{17} - .206X_{18}$$

앞의 모델을 보면,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 관련 변인이 8.5%, 가정관련 변인이 11.6%, 학교관련 변인이 1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성별,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진로체험 만족도가 희망전공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부모와 대화빈도,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5>와 같다.

1단계에서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가 미래직업 결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143.530, 유의확률은 .000으로 미래직업 결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9.0%(수정계수에 의하면, 8.9%)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

다. 1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82, VIF 계수는 최대가 1.212, Durbin-Watson 계수는 1.93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 결정}) = .041X_1 + .281X_2 + .044X_3 + .025X_4$$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가정관련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부모와 대화빈도가 미래직업 결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미래직업 결정에 부적의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61.128, 유의확률은 .000으로 미래직업 결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0.7%(수정계수에 의하면, 10.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75, VIF 계수는 최대가 2.221, Durbin-Watson 계수는 1.93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 결정}) = .024X_1 + .262X_2 + .035X_3 + .025X_4 - .043X_5 + .100X_6 + .032X_7 + .054X_8$$

<표 IV-5>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p	β	t	p	β	t	p
개인									
성별	.041	3.974 ***	.000	.024	2.331 *	.020	.022	2.071 *	.038
자아효능감	.281	25.829 ***	.000	.262	23.595 ***	.000	.260	23.433 ***	.000
학업효능감	.017	1.536	.125	.007	.607	.544	.006	.524	.600
진로활동 만족도	.044	3.903 ***	.000	.035	3.145 **	.002	.023	2.033 *	.042
진로체험 만족도	.002	.191	.848	.012	1.069	.285	.016	1.371	.170
현장체험 만족도	.025	2.278 *	.023	.025	2.360 *	.018	.025	2.303 *	.021
가정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43	-3.938 ***	.000	-.016	-1.401	.161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006	.561	.575	.007	.600	.548
부모의 기대직업				.100	9.748 ***	.000	.100	9.769 ***	.000
월평균가구소득				-.004	-.375	.708	-.012	-1.084	.278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02	.142	.887	.006	.472	.637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15	1.286	.198	.014	1.271	.204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13	1.040	.299	.014	1.085	.278
어머니 학력 더미(석사이상)				.010	.936	.349	.009	.801	.423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32	2.106 *	.035	.029	1.900	.057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20	-1.294	.196	-.003	-.205	.837
부모와 대화 빈도				.054	5.116 ***	.000	.056	5.259 ***	.000
학교									
고등학교소재지 더미(광역시)							-.017	-1.555	.120
고등학교소재지 더미(도)							.006	.497	.619
고등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122	-8.995 ***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목고)							-.046	-3.704 ***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049	3.744 ***	.000
R^2		.090			.107			.116	
수정된 R^2		.089			.105			.113	
R^2 변화량		.090			.017			.009	
F		143.530			61.128			51.603	
F 변화량 유의확률		.000			.000			.000	
p		.000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1.935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학교관련 변인 중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미래직업 결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은 미래직업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고등학교 유형이 특목고일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개수가 많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51.603, 유의확률은 .000으로 미래직업 결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1.6%(수정계수에 의하면, 11.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67, VIF 계수는 최대가 1.793, Durbin-Watson 계수는 1.93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 결정}) = .022X_1 + .260X_2 + .023X_3 + .025X_4 + .100X_5 + .056X_6 - .122X_7 - .046X_8 + .049X_9$$

위 모델을 보면,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9.0%, 가정관련 변인이 1.7%, 학교관련 변인이 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 자아효능감, 현장체험 만족도, 진로활동 만족도, 성별 순으로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와 대화빈도 순으로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순으로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이 미래직업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가정관련, 학교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6>과 같다.

1단계에서 개인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가 미래직업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188.521, 유의확률은 .000으로 미래직업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1.5%(수정 계수에 의하면, 11.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1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82, VIF 계수는 최대가 1.212, Durbin-Watson 계수는 1.92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정보}) = .042X_1 + .317X_2 + .048X_3 + .026X_4$$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가정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가정관련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부모와 대화빈도가 미래직업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 일수록 미래직업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이 비용이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78.239, 유의확률은 .000으로 미래직업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3.3%(수정계수에 의하면, 13.1%)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75, VIF 계수는 최대가 2.221, Durbin-Watson 계수는 1.92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정보}) = .024X_1 + .296X_2 + .039X_3 + .026X_4 - .042X_5 + .099X_6 + .036X_7 + .063X_8$$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변인에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 중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 투입된 학교관련 변인 중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미래직업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 일수록 미래직업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이 비용이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은 미래직업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고등학교 유형이 특목고일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 개수가 많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F 통계값은 65.344, 유의확률은 .000으로 미래직업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4.2%(수정계수에 의하면, 14.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단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67, VIF 계수는 최대가 2.227, Durbin-Watson 계수는 1.929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결과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6>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p	β	t	p	β	t	p	
개인	성별	.042	4.110 ***	.000	.024	2.384 *	.017	.021	2.091 *	.037
	자아효능감	.317	29.546 ***	.000	.296	27.003 ***	.000	.294	26.861 ***	.000
	학업효능감	.020	1.880	.060	.010	.939	.348	.009	.849	.396
	진로활동 만족도	.048	4.351 ***	.000	.039	3.544 ***	.000	.026	2.360 *	.018
	진로체험 만족도	.007	.644	.520	.018	1.528	.126	.022	1.877	.061
	현장체험 만족도	.026	2.398 *	.016	.026	2.499 *	.012	.026	2.477 *	.013
가정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42	-3.885 ***	.000	-.014	-1.241	.215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003	.265	.791	.004	.346	.730
	부모의 기대직업				.099	9.767 ***	.000	.099	9.819 ***	.000
	월평균가구소득				.001	.109	.913	-.007	-.667	.505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00	-.001	.999	.004	.360	.719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15	1.372	.170	.015	1.358	.175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13	1.042	.298	.014	1.087	.277
	어머니 학력 더미(석사이상)				.011	.994	.320	.009	.859	.391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36	2.397 *	.017	.032	2.187 *	.029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20	-1.353	.176	-.004	-.246	.806
학교	부모와 대화 빈도				.063	6.032 ***	.000	.064	6.174 ***	.000
	고등학교소재지 더미(광역시)							-.017	-1.593	.111
	고등학교소재지 더미(도)							.001	.086	.931
	고등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126	-9.453 ***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목고)							-.050	-4.094 ***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053	4.097 ***	.000	
R^2		.115			.133			.142		
수정된 R^2		.114			.131			.140		
R^2 변화량		.115			.018			.009		
F		188.521			78.239			65.344		
F 변화량 유의확률		.000			.000			.000		
p		.000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1.929

$$Y(\text{미래직업정보}) = .021X_1 + .294X_2 + .026X_3 + .026X_4 + .099X_5 + .032X_6 + .064X_7 - .126X_8 - .050X_9 + .053X_{10}$$

위 모델을 보면, 미래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11.5%, 가정관련 변인이 1.8%, 학교관련 변인이 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현장체험 만족도, 진로활동 만족도, 성별 순으로 미래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와 대화빈도,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순으로 미래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순으로 미래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가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진로성숙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가. 진로성숙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개인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진로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 성별 순으로 진로성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F통계값은 1232.672, 유의확률은 .000으로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41.2%(수정계수에 의하면, 41.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0, VIF 계수는 최대가 1.312,

Durbin-Watson 계수는 1.85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진로성숙}) = .436X_1 + .261X_2 + .121X_3 + .063X_4 + .055X_5 + .040X_6$$

<표 IV-7> 진로성숙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자아효능감	.436	54.721 ***	.000	.302	.302	.302	4562.573 ***	.000	.000
학업효능감	.261	32.362 ***	.000	.382	.381	.080	3256.506 ***	.000	.000
진로활동만족도	.121	14.599 ***	.000	.403	.403	.022	2377.513 ***	.000	.000
진로체험만족도	.063	7.354 ***	.000	.408	.408	.005	1817.489 ***	.000	.000
현장체험만족도	.055	6.954 ***	.000	.411	.410	.003	1469.766 ***	.000	.000
성별	.040	5.314 ***	.000	.412	.412	.002	1232.672 ***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852

나. 진로성숙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가정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진로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아버지 학력(석사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순으로 진로성숙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아버지 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많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부모의 기대학력이 초대졸이하일수록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값은 130.981, 유의확률은 .000으로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0.7%(수정계수에 의하면, 10.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94, VIF 계수는 최대가 1.317, Durbin-Watson 계수는 1.800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진로성숙}) = .235X_1 + .113X_2 - .082X_3 - .048X_4 + .028X_5 + .026X_6 + .024X_7 + .023X_8$$

<표 IV-8> 진로성숙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B	t	p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부모와 대화빈도	.235	22.911 ***	.000	.068	.067	.068	631.398 ***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113	10.305 ***	.000	.093	.092	.025	444.133 ***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82	-7.555 ***	.000	.102	.101	.009	328.846 ***	.000	.000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48	-4.114 ***	.000	.105	.105	.003	255.752 ***	.000	.000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28	2.486 *	.013	.106	.105	.001	206.005 ***	.012	.000
월평균가구소득	.026	2.378 *	.017	.106	.106	.001	172.725 ***	.016	.000
기대직업	.024	2.320 *	.020	.107	.106	.001	148.919 ***	.019	.000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23	2.223 *	.026	.107	.107	.001	130.981 ***	.026	.000

*p<.05, **p<.01, ***p<.000

Durbin-Watson 1.800

다. 진로성숙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학교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진로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9>와 같다.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순으로 진로성숙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유형이 특목고일수록,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 개수가 많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는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진로성숙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116	10.399***	.000	.036	.036	.036	391.221***	.000	.000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169	-14.366***	.000	.048	.048	.012	266.336***	.000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103	8.720***	.000	.054	.054	.006	202.236***	.000	.000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도)	-.051	-5.351***	.000	.057	.057	.003	159.234***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830

F 통계값은 159.234, 유의확률은 .000으로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5.7%(수정계수에 의하면, 5.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9, VIF 계수는 최대가 1.563, Durbin-Watson 계수는 1.830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진로성숙}) = .116X_1 - .169X_2 + .103X_3 - .051X_4$$

진로성숙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41.2%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관련 변인(10.7%), 학교관련 변인(5.7%)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과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와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와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4.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가.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1)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개인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교육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학업효능감	.234	23.284 ***	.000	.064	.064	.064	723.485 ***	.000	.000
성별	.085	9.073 ***	.000	.072	.072	.008	407.899 ***	.000	.000
자아효능감	.077	7.757 ***	.000	.077	.077	.005	293.678 ***	.000	.000
진로체험만족도	-.078	-7.612 ***	.000	.080	.079	.002	227.999 ***	.000	.000
진로활동만족도	.073	7.091 ***	.000	.084	.083	.004	193.308 ***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447

학업효능감,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순으로 희망교육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 만족도는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통계값은 193.308,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교육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8.4%(수정계수에 의하면, 8.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0, VIF 계수는 최대가 1.223, Durbin-Watson 계수는 1.44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교육수준}) = .234X_1 + .085X_2 + .077X_3 - .078X_4 + .073X_5$$

2)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가정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교육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B	t	p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305	-31.237***	.000	.178	.178	.178	1890.360***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254	25.657***	.000	.265	.265	.087	1570.307***	.000	.000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75	-6.651***	.000	.278	.278	.013	1119.010***	.000	.000
월평균가구소득	.048	4.882***	.000	.281	.281	.003	850.804***	.000	.000
어머니 학력(초대졸이하)	-.047	-4.256***	.000	.283	.283	.002	687.073***	.000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70	-5.198***	.000	.285	.284	.002	577.242***	.000	.000
부모와대화	.034	3.662***	.000	.286	.285	.001	497.761***	.000	.000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031	3.081**	.002	.287	.286	.001	437.096***	.002	.000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37	2.741**	.006	.287	.287	.001	389.669***	.006	.000
기대직업	.019	2.038*	.042	.288	.287	.000	351.244***	.042	.000

*p<.05, **p<.01, ***p<.000

Durbin-Watson 1.813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부모와 대화 빈도, 아버지 학력(석사이상), 부모의 기대직업, 어머니 학력(초대졸이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순으로 희망교육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대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이 많을수록,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교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초대졸이

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개수, 아버지의 학력(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는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값은 351.244,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교육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28.8%(수정계수에 의하면, 28.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7, VIF 계수는 최대가 2.245, Durbin-Watson 계수는 1.813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교육수준}) = .254X_1 + .048X_2 + .037X_3 + .034X_4 + .031X_5 + .019X_6 - .047X_7 - .070X_8 - .075X_9 - .305X_{10}$$

3)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학교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교육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B	t	p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고등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318	-28.994 ***	.000	.160	.160	.160	2005.498 ***	.000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148	-13.462 ***	.000	.173	.173	.013	1102.936 ***	.000	.000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도)	-.072	-7.420 ***	.000	.176	.176	.003	752.505 ***	.000	.000
고등학교유형 더미(특목고)	.060	5.703 ***	.000	.179	.178	.002	573.226 ***	.000	.000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광역시)	-.029	-3.028 **	.002	.179	.179	.001	460.769 **	.002	.000

*p<.05, **p<.01, ***p<.000

Durbin-Watson 1.684

고등학교 유형(특목고)은 희망교육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소재지(도), 고등학교 소재지(광역시)는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값은 460.769,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교육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7.9%(수정계수에 의하면, 17.9%)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837, VIF 계수는 최대가 1.569, Durbin-Watson 계수는 1.68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교육수준}) = .060X_1 - .029X_2 - .072X_3 - .148X_4 - .318X_5$$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가정관련 변인이 28.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인(17.9%), 가정관련 변인(8.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학업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나.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1)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개인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전공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자아효능감, 성별, 진로활동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만족도는 희망전공 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자아효능감	.220	17.875 ***	.000	.048	.048	.048	324.898 ***	.000	.000
성별	.085	6.995 ***	.000	.056	.056	.008	189.765 ***	.000	.000
진로활동만족도	.058	4.416 ***	.000	.058	.058	.003	132.599 ***	.000	.000
현장체험만족도	.049	3.885 ***	.000	.060	.060	.002	102.456 ***	.001	.000
진로체험만족도	-.034	-2.566 ***	.010	.061	.060	.001	83.352 ***	.01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909

F 통계값은 83.352,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 선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6.1%(수정계수에 의하면, 6.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8, VIF 계수는 최대가 1.218, Durbin-Watson 계수는 1.90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 선택}) = .220X_1 + .085X_2 + .058X_3 + .049X_4 - .034X_5$$

2)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가정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전공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부모의 기대직업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전공 선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는 희망전공 선택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통계값은 48.329,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 선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3.4%(수정계수에 의하면, 3.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

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93, VIF 계수는 최대가 1.045, Durbin-Watson 계수는 1.906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 선택}) = .109X_1 + .082X_2 - .076X_3 + .067X_4$$

<표 IV-14>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부모와 대화 빈도	.109	8.119***	.000	.015	.014	.015	81.124***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082	6.004***	.000	.024	.023	.009	66.322***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76	-5.601***	.000	.030	.029	.006	55.906***	.000	.000
부모의 기대직업	.067	4.986***	.000	.034	.033	.004	48.329***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906

3)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학교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전공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0.11	-8.854***	.000	0.012	0.012	0.012	78.392***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914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만 희망전공 선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통계값은 78.392,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 선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2%(수정계수에 의하면, 1.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공차한계는 1.000, VIF 계수는 최대가 1.000, Durbin-Watson 계수는 1.91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6.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3.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다.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1)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개인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전공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성별	.180	19.153***	.000	.030	.030	.030	327.831***	.000	.000
자아효능감	.157	15.832***	.000	.063	.063	.033	354.726***	.000	.000
진로체험만족도	-.149	-14.518***	.000	.071	.071	.008	270.058***	.000	.000
진로활동만족도	.109	10.660***	.000	.083	.083	.012	239.916***	.000	.000
학업효능감	.094	9.356***	.000	.091	.090	.008	211.014***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442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학업효능감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을수록 희망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 만족도는 희망전공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통계값은 211.014,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9.1%(수정계수에 의하면, 9.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0, VIF 계수는 최대가 1.223, Durbin-Watson 계수는 1.44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정보}) = .180X_1 + .157X_2 - .149X_3 + .109X_4 + .094X_5$$

2)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가정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전공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232	-21.862***	.000	.101	.101	.101	977.359***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137	12.941***	.000	.128	.128	.027	638.622***	.000	.000
월평균가구소득	.073	6.890***	.000	.135	.135	.007	453.797***	.000	.000
부모의 기대직업	.082	8.294***	.000	.142	.142	.007	361.445***	.000	.000
부모와 대화빈도	.068	6.824***	.000	.147	.147	.005	300.299***	.000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090	-6.099***	.000	.151	.150	.004	257.916***	.000	.000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54	-4.998***	.000	.153	.153	.002	225.315***	.000	.000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40	2.711**	.007	.154	.153	.001	198.213***	.007	.000

*p<.05, **p<.01, ***p<.000

Durbin-Watson 1.614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와 대화 빈도,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와 정적

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대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많을수록 희망 전공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초대졸이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는 희망전공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값은 198.213,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5.4%(수정계수에 의하면, 15.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7, VIF 계수는 최대가 2.244, Durbin-Watson 계수는 1.61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정보}) = .137X_1 + .082X_2 + .073X_3 + .068X_4 + .040X_5 - .054X_6 - .090X_7 - .232X_8$$

3)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학교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희망전공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희망전공정보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B	t	p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종류 개수	-.217	-20.153***	.000	.154	.154	.154	1924.764***	.000	.000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312	-29.158***	.000	.201	.201	.047	1325.465***	.000	.000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152	-15.033***	.000	.217	.217	.017	977.806***	.000	.000

*p<.05, **p<.01, ***p<.000

Durbin-Watson 1.733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값은 977.806,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21.7%(수정계수에 의하면, 21.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722, VIF 계수는 최대가 1.557, Durbin-Watson 계수는 1.733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희망전공정보}) = -.217X_1 - .312X_2 - .152X_3$$

희망전공 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학교관련 변인이 21.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15.4%), 개인관련 변인(9.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라.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1)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개인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미래직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성별, 현장체험 만족도 순으로 미래직업 결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

업 결정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자아효능감	.289	30.636 ***	.000	.088	.088	.088	1019.178 ***	.000	.000
진로활동만족도	.061	6.416 ***	.000	.092	.092	.004	536.624 ***	.000	.000
성별	.047	5.078 ***	.000	.094	.094	.002	366.756 ***	.000	.000
현장체험만족도	.027	2.913 ***	.004	.095	.095	.001	277.384 ***	.004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892

F 통계값은 277.384,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9.5%(수정계수에 의하면, 9.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7, VIF 계수는 최대가 1.041, Durbin-Watson 계수는 1.89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결정}) = .289X_1 + .061X_2 + .047X_3 + .027X_4$$

2)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가정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미래직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순으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직업(초대졸이하)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부모와 대화빈도	.127	11.996***	.000	.019	.019	.019	169.748***	.000	.000
부모의 기대직업	.102	9.672***	.000	.031	.031	.012	138.414***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054	-4.954***	.000	.035	.034	.004	103.807***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029	2.688**	.007	.035	.035	.001	79.717***	.007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885

F 통계값은 79.717,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3.5%(수정계수에 의하면, 3.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9, VIF 계수는 최대가 1.077, Durbin-Watson 계수는 1.88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결정}) = .127X_1 + .102X_2 - .054X_3 + .029X_4$$

3)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학교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미래직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156	-14.689	.000	.018	.018	.018	196.417	.000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050	4.677	.000	.020	.020	.002	109.339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903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미래직업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 개수가 많을수록 미래직업 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값은 109.339,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2.0%(수정계수에 의하면, 2.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821, VIF 계수는 최대가 1.219, Durbin-Watson 계수는 1.903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결정}) = .050X_1 - .156X_2$$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9.5%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3.5%), 학교관련 변인(2.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마.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1)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개인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미래직업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자아효능감	.326	35.035***	.000	.112	.112	.112	1332.148***	.000	.000
진로활동만족도	.067	7.161***	.000	.117	.117	.005	700.543***	.000	.000
성별	.048	5.265***	.000	.119	.119	.002	476.932***	.000	.000
현장체험만족도	.031	3.308**	.001	.120	.120	.001	360.771***	.001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883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성별, 현장체험 만족도 순으로 미래직업정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현장체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F 통계값은 360.771,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12.0%(수정계수에 의하면, 12.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86, VIF 계수는 최대가 1.041, Durbin-Watson 계수는 1.883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정보}) = .326X_1 + .067X_2 + .048X_3 + .031X_4$$

2)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가정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미래직업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순으로 미래직업정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이 많을수록, 미래직업정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부모와 대화빈도	.145	13.747***	.000	.025	.025	.025	221.310***	.000	.000
부모의 기대직업	.101	9.534***	.000	.036	.036	.011	163.574***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터미(초대졸이하)	-.057	-5.233***	.000	.040	.040	.004	121.468***	.000	.000
부모의 기대학력 터미(석사이상)	.031	2.831**	.005	.041	.041	.001	93.132***	.005	.000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비용	.022	2.106*	.035	.042	.041	.000	75.422***	.035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871

F 통계값은 75.422,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4.2%(수정계수에 의하면, 4.1%)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995, VIF 계수는 최대가 1.081, Durbin-Watson 계수는 1.87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정보}) = .145X_1 + .101X_2 - .057X_3 + .031X_4 + .022X_5$$

3)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학교관련 변인의 하위변인이 미래직업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미래직업정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 중다회귀분석

변인	β	t	p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유의확률	p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166	-15.585 ***	.000	.020	.020	.020	215.293 ***	.000	.000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057	5.374 ***	.000	.023	.022	.003	122.369 ***	.000	.000

* $p < .05$, ** $p < .01$, *** $p < .000$ Durbin-Watson 1.893

F 통계값은 122.369, 유의확률은 .000으로 희망전공정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 변량의 2.3%(수정계수에 의하면, 2.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공차한계는 최대가 .821, VIF 계수는 최대가 1.219, Durbin-Watson 계수는 1.893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text{미래직업정보}) = .057X_1 - .166X_2$$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12.0%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4.2%), 학교관련 변인(2.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V. 결론 및 논의

1. 요약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41.3%, 가정관련 변인이 2.2%, 학교관련 변인이 0.6%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현장 체험 만족도, 성별 순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부모의 기대직업, 어머니 학력 더미(석사 이상),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초대졸이하) 순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진로성숙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광역시),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도) 순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광역시),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도),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는 진로성숙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성숙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41.2%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관련 변인(10.7%), 학교관련 변인(5.7%)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과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와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와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었다.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8.1%, 가정관련 변인이 23.3%, 학교관련 변인이 3.5%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학업효능감, 성별, 자아효능감 순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아버지 학력 더미(석사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개수,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순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어머니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개수는 부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도),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순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도),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부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가정관련 변인이 28.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인(17.9%), 가정관련 변인(8.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목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학업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5.9%, 가정관련 변인이 1.7%, 학교관련 변인이 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성별, 현장체험 만족도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

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부모와 대화 빈도,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는 희망전공 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학교유형 더미(특목고), 학교유형 더미(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순으로 희망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전공 선택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6.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3.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8.5%, 가정관련 변인이 11.6%, 학교관련 변인이 1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성별, 학업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 현장체험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진로체험 만족도가 희망전공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석사이상), 부모의 기대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부모와 대화빈도,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 아버지 학력 더미(초대졸이하), 부모의 기대학력 더미(초대졸이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소재지 더미(도),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순으로 희망전공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전공 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학교관련 변인이 21.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15.4%), 개인관련 변인(9.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특성화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성별, 자아효능감, 진로활동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9.0%, 가정관련 변인이 1.7%, 학교관련 변인이 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 자아효능감, 현장체험 만족도, 진로활동 만족도, 성별 순으로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와 대화빈도 순으로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순으로 미래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가 미래직업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9.5%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3.5%), 학교관련 변인(2.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미래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개인관련 변인이 11.5%,

가정관련 변인이 1.8%, 학교관련 변인이 0.9%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 현장체험 만족도, 진로활동 만족도, 성별 순으로 미래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기대직업, 부모와 대화빈도, 월평균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 순으로 미래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 순으로 미래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목고), 고등학교 유형 더미(특성화고)가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직업정보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개인관련 변인이 12.0%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정관련 변인(4.2%), 학교관련 변인(2.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빈도, 부모의 기대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2. 논의

첫째,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의 모든 하위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이었다.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하여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와(김경식·이현철, 2012; 김도연, 2011; 김효선·양승호, 2012; 신선아·전종설, 2015)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자

자아효능감을 개인체계 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아효능감은 기존의 문헌에서 개인 체계 변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김종립, 2015).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 희망교육수준과 희망전공 선택과 정보, 미래직업 결정과 정보에 미치는 개인변인 중에서 자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ussey & Bandura(1999)에 따르면, 자아효능감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가족관련 변인과 학교관련 변인을 함께 평가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관련변인은 진로준비와 선택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와 선택 결과의 기대치는 자아효능감에 의해 가장 크게 형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을 진행할 때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해 본인의 현실적인 역량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별 역시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의 모든 하위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김성경, 2008; 김기현·유홍준·오병돈, 2014; 김중성·이병훈, 2010; 김희수·김옥희, 2007; 신선아·전종설, 2015)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남학생들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목적을 기초로 하여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효능감은 진로성숙과 희망교육수준, 희망전공정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은 교육성취와 직결되고, 교육성취는 다시 사회에서의 지위획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김경근·변수용, 2006).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학습능력과 학업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소질,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탐색행동을 형성하기보다는 주로 성적에 따라 형성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이 사회경제적 이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

식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째, 진로활동 만족도와 현장체험 만족도는 진로성숙과 희망전공선택, 희망전공정보, 미래직업 결정, 미래직업정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선행연구(김경식·이현철, 2012, 김성경, 2008; 김진원·모영민, 2018; 임현정·김난옥, 2011; 주현준·이쌍철, 2014)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시기에 적합한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은 적절한 진로탐색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진로와 직업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한 경우는 50% 미만에 그쳤고 특정 대학 진학에 맞추어진 진로활동, 진로진학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나라·방재현·정진철, 2012; 백선희·심우정, 2018; 이지연·최동선, 2005). 모든 학교급에서 진로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학령기이기 때문에 대학진학과 취업에 있어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대학의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본인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진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탐색과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진로교육활동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와 대화 빈도가 진로성숙과 희망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진로탐색행동 하위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31.8%가 부모로부터 진로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진로결정에 부모, 인터넷, 언론, 교사 순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여정(2007)은 가정 내에서 이

루어지는 진로와 관련된 대화 및 활동이 자녀의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조아미(2007)의 연구에서도 가정 내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할수록 직업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재혁·이용택(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진로에 관련된 대화가 많을 때 부모의 관심이 진로정체감에 더 큰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시기는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전공 선택이나 취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가정의 특성 안에서도 발달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 형성을 위해 포용적인 환경에서 부모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도록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의 흥미와 적성, 관심사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모의 기대학력(석사이상)과 기대직업 역시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한 개인에게 있어 부모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며, 전 생애발달 동안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기대는 가치, 신념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성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게도 이런 성취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표출한다고 나타났다(김경아, 2005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진로성취를 본인의 성공적인 성취와 동일시하며, 삶의 연속성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은 지위, 안정된 직업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정혜연, 2009; 최이선, 200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이 반영되어 부모의 기대학력이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청소년 시기의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것과 상관없는 진로

를 선택하는 경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면화시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용의 경우, 진로성숙, 희망교육수준, 희망전공정보, 미래직업정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 개수는 희망전공정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년 혹은 청소년들은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과도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사교육은 첫 일자리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월평균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 종사상 지위별 비율은 취업사교육 유형과는 관계가 없거나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지윤·김병주, 2012; 성지미·안주엽, 2012; 백원영, 2018). 학업성취도 향상이나 대학입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교육과 달리 취업을 위한 사교육은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 혹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수능점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수능점수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취업 및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과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심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이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특성화고, 특목고 학생들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이 더 높다고 보고(김성경, 2008; 김소연, 2012; 정세연, 2012; 정윤경, 2005; 최보금, 2018)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라(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이후 미래직업 결정이 감소하였으나, 일반계 고교생의 경우, 고1 시기에 미래직업 결정이 감소하였다가 고2 시기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계 고교생이 전문계 고교생보

다 진로정보 획득수득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윤경(2005)의 연구에서도 일반계고 학생들이 실업계고 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실현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의 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적성에 맞추어 진학한 경우도 있지만 성적 부진이나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반고 진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성화고 세부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보가 없이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 대한 불만족과 열등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경우, 상당수가 취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학진학을 통해 진로 수정을 선택하고 있다.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5년간 최고 73%, 최저 35%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최저수준이었던 2016년도에도 1/3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대학진학을 택하고 있다. 한편,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자의 약 20%가 취업 후 3개월 내에 근로여건 불만족, 적성 불일치 등과 같은 이유로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종각·이성재·이지민·박선연, 2015). 상당수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학진학을 꾸준히 선택하고 있는 추세는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필요와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는 2016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등학생과 응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단일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년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

학교)로 구분하였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특수목적고에 해당은 되지만 유망분야의 산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성격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목적고 학생들에 비해 고교시기에 진로준비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학교유형별 진로성숙 및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8). “한국폴리텍대학-한국산업인력공단, 4차 산업혁명 인재 함께 키운다”. 보도자료(2018.05.30.).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
- 교육부(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 교육부(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8.08.30.).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길혜지·백순근·양현경·신은주(2018).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2), 453-475.
- 길혜지·백순근·양현경(2018). 마이스터 진학생의 고교 시기 진로준비 관련 경험과 진로성숙도 분석: 특성화고 진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pp. 517-534).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경근·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경령.(200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이현철(2007). 진로결정 수준 변화의 영향 요인.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pp. 95-10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경식·이현철(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 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 김경아(2005). 성 및 출생순위가 부모의 자녀 진로기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주·송병국·박정배(2009). 가정유형과 학업성적 및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청소년 진로포부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 6(1), 113-135.

김경주(2010).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기현·유홍준·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김나라·방재현·정진철(2012).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인식한 학교 진로교육 실태와 요구. **진로교육연구**, 25(2), 183-201.

김도연(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말선(2012).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란·한수정(2018). 고등학생의 개인적·사회적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9), 399-405.

김민정(2018). 중·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태도성숙과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경(2008). 고등학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6), 145-170.

김서영(2008). 대안학교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2012). 고등학교유형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리(2004).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희·김옥희(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 김애희·윤종희·김리진(2010).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177-201.
- 김장희·정성수(2012). 공업계열 특성화고교생의 직업흥미-전공 일치도, 직업흥미-포부 일치도,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9(3), 1-18.
- 김종립(2015). 후기 청소년의 미시체계, 개인체계, 건강증진행의 간의 구조모형: 보건교육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5, 45-63.
- 김종성·이병훈(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 김진원·모영민(2018).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 **제1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pp. 375-398).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효선·양승호(2012).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학생특성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직업교육연구**, 31(1), 57-74.
- 김희수·김옥희(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 남지영·김재철(2018).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변화궤적 분류 및 예측요

- 인 탐색. **제4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논문집** (pp.337-370).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연구소.
- 노혁(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06-328.
- 문미경·민현주·한성숙(2018). 고교유형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제1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pp. 138-15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완성(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완성(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 박지윤·김병주(2012).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285-308.
- 방하남·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 코호트 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19(3), 31-65.
- 배상훈·김환식·김효선(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55-180.
- 백선희·심우정(2018).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활동 경험: 학교의 공급과 학생의 경험. **한국교육**, 45(4), 227-253.
- 백진희(2008). 고등학생의 가족특성 및 심리적특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숙(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미·안주엽(2012).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한국경제연구**, 30(3),

5-46.

- 송민경(2009). 청소년기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51-81.
- 서유정·김수원·박천수·정윤경(2016). **진로교육법 체제에서 진로교육 추진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선미·김영옥·김종숙·안준기(2017).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선아·전종철(2015).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7(3), 111-136.
- 신상인(2015).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진로포부, 진로타협,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종각·이성재·이지민·박선연(2015).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pp. 297-323).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선영·이경상(2009). 중등교육단계 청소년 진로 결정요인 및 결과: 고등학교 계열선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81-99.
- 오석영(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77-94.
- 오헌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유정이·김지현·황매향(2004). 중고등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2(2), 315-333.
- 유홍준·김기현·신인철·오병돈(2013). 청소년의 직업포부와 희망직업: 대학진공 선택과의 관련성 분석. **직업교육연구**, 32(6), 91-110.
- 이기중·곽수란(2016). 직업포부와 교육포부가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9(1), 25-48.

- 이기학·한종철(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도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35-349.
- 이득연(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 진로결정수준별 공변량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2012). 고등학생의 진로·직업 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임(2012).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행복과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2(3), 133-155.
- 이왕원·최지은·최율(2017). 대입시기 대학 및 전공에 대한 선택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20(1), 57-94.
- 이은아(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한국사회**, 8(1), 121-162.
- 이용택·최재혁(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진로관련 대화와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47-66.
- 이인자(2002). 고교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사와의 대인거리,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정혜원(2016).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발달양상의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1), 29-53.
- 이종범(2005).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성숙간의 관계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25-41.
- 이종범·최동선·오창환(2012).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4), 25-43.
- 이지연·최동선(2005). 초, 중등 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직업교육연구**, 24(3), 343-380.

- 이현주(2018).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학년별, 계열별 비교-경기교육중단연구(GEPS) 활용-.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언·정윤경·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정훈(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윤(2018).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사회자본 및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김난옥(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현정·정혜원(2018). 청소년기 진로에 관한 대화상대 및 빈도에 따른 전공선택 요인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1), 265-294.
- 전현정·정혜원(201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특성 변인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213-240.
- 정미나·노지은(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상훈·김창근(2017). 청년취업자의 성격 5요인과 취업성과 간의 관계.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3(1), 37-75.
- 정세연(2012). 계열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비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가정, 개인,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

- 집(pp. 259-30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중화(2002). 중학생들의 진로포부수준, 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원(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1), 101-118.
- 정주원(2016).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8**(4), 139-158.
- 정혜연(2009). 부모진로기대에서 적성의 고려 여부가 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지각을 중심으
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
학 연구**, **8**(3), 1058-1099.
- 조명희·이혜연·이현우(2013). 고교생의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6**(2),
91-112.
- 조아미(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
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조아미(2007).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청소년시설환경**, **5**(1), 11-20.
- 조유희(2016).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성
동기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조성심·주석진(2011). 생태체계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61-81

- 조세연·김기찬(2014).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9), 325-349.
- 조혜영(2015).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 능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연구**, 5(4), 29-56.
- 주동범(2010). 고등학교 계열별 고등학생들의 교육적 성과 차이 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1-15.
- 주현준·이쌍철(2014).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분석. **교육종합연구**, 12(2), 157-180.
- 최보금(2018).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 탐색: 고교유형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제1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pp. 157-17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수정(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숙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18(3), 31-57.
- 최윤정·김지은(2012).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3(2), 81-106.
- 최이선(2008). 부모기대지각,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개발 실태 분석: 일반계 고교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2008-9**.
-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대입관련 의사결정과 언론보도에 대한 평가**.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2014년도 학교 진로교육실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4년제 대졸자의 취업사교육 현황 및 첫 일

- 자리 성과. **KRIVET Issue Brief**, 154, 1-4.
- 한정현·조현희(2018).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 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3), 1-38.
- 한희진·양정호·김화영·김영민(201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4(2), 381-397.
- 허균(2014).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진로고민과 진로장벽 경험 시점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101-118.
- 홍윤진(2010). 고등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후조·안영수(200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수준에 따른 진학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7(1), 193-226.
- 황매향·김지현·유정이(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황매향·임은미(2004). 중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Betz, N. E. & Hackette,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ronfenbrenner, U.(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 - 742.
- Bronfenbrenner, U.(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pp. 1643 - 1647). (2nd ed.). New York: Elsevier Sciences.
- Brown, S. D. & Lent, R. W.(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NJ: John Wiley & Sons Inc.
- Blustein, D L.(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Bussey, K. & Bandura, A. B.(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gender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Review, 106*, 676-713.
- Cook, E. P. & Heppner, M. J. & O'Brien, K. M.(2002). Career Development of Women of Color and White Women: Assumptions, Conceptualization, and Intervention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 291-305.
- Flum, H., & Blustein, D. L.(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 95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80-404.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Crites, J. O.(1973). Career maturity. *NCME*, 4(2), 1-8.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CA: CBT/McGraw-Hill.
- Gribbons, W. D. & Lohnes, P. R.(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1), 13-19.
- Ginzberg, E., Ginsburg, S., Axelrad, S., & Herma, J.(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Hickey, N., Harrison, L., & Sumsion, J.(2012). Using a socio-ecologic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career choices of single- and double-degree nursing students and double-degree graduates.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2012*, 1-10.
- Hoyt, K. B.(1977). *Career education: What it is and how to do it*. Salt Lake City: UT Olympus Publishing Company.
- Jordaan, J. P.(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In D. E. Super (Ed.),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 42 - 78).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Kemp, A.(1998). *Abuse in the family: An introduction*. NY: Brook/Cole.
- Lent, R. W. & Hackett, G.(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iao, M.(2016). Factors affecting post-permanency adjustment for children in adoption or guardianship placements: An eco-

- logical systems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6, 131-143.
- O'Brien, K. M.(1992).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choice and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Stephenson R. N.(1962). Mobility orientation and stratification of 1000 ninth grad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2(2) 204-212.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pper &Row.
- Super, D. E.(1960). *The vocational maturity ninth-grade boys*. NY: Teachers College Press.
- Super, D. E.(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ABSTRACT

An Ident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r High School Students:
Towards an Evaluation of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II

Yoon Kyung Lee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s career exploration is not a task that needs to be developed and selected at a specific point in time, but it is a task that needs to be developed and selected throughout the developmental stages of life, it may vary depending on a person's efforts and preparations.

Especially, as the high school period is the final stage in searching for a career during school age, students make the important decision during this period for their job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or entrance to college. As such, most students decide their future job according to the specific field which they chose when they graduated from high schoo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high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eir career maturity consistent with their developmental task based on their knowledge of the job world which changes rapidly as well as the understanding of themselves. In particular,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period is

subject to a lot of changes in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is period is affected by the combination of many variables such as individual, home, and school.

For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ingle cohort of 2nd grade students(10,558students) in highschool were researched according to 1st of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KEEP) II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 to individual-related, school-related and home-related variables whil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 to career matur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the first stage,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second stage, the home-related variables were added to the variables existing in the first stage (Step 1+ Step 2). In the third step, the school-related variables were added to the variables existing in the second stage (Step 1 + Step 2 + Step 3). The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in the stepwise method by putting each of the sub-variabl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in order to measure the effect of each sub variabl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self-efficacy, academic efficacy, and career activity satisfaction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In the home-related variables,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and the education desired by parents (at least MA)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In the school-related variables, the type of high school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nd the number of after-school programs for future employment and certification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As for the level of desired education, the followings were found; in the

home-related variables, the education desired by parents (at least MA)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school-related variables, the high school type (special high school)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the academic efficacy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he desired level of education. As for the selection of preferred major, the followings were found; in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the self-efficacy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home-related variables,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s for the information of preferred major, the followings were found; in the school-related variables, the type of high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s)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home-related variables, the education desired by parents (at least MA)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sex, self-efficacy, and career activity satisfaction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As for the decision of future job, the followings were found; in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the self-efficacy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home-related variables,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and the expected job of the parents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In the school-related variables, the number of after-school programs for future employment and certifica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As for the information of future job, the followings were found; In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the self-efficacy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home-related variables,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and the expected job of the parents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In the school-related variables, the number of after-school schools for future employment and qualifica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1. 개인관련 변인

96. 성별은 무엇입니까? [Y16S13002]

① 남자

② 여자

102.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1)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Y16S13012]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Y16S13013]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Y16S13014]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Y16S13015]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할 수 있다 [Y16S13016]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6) 내가 관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Y16S13017]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12. 교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교과목 <input type="checkbox"/>	항 목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1) 국어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47]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48]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49]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수학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50]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51]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52]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영어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53]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54]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55]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4) 과학 영역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56]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57]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58]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5) 사회 영역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59]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60]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61]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6) 음악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62]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63]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64]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7) 미술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65]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66]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67]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8) 체육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68]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69]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70]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9) 전문교과 <input type="checkbox"/>	1) 재미있다 [Y16S01071]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 잘한다 [Y16S01072]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3) 좋아한다 [Y16S01073]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16. 학교에서 수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경험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진로와 직업' 수업	①	②	③	④	⑤ [Y16S01089]	
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①	②	③	④	⑤ [Y16S01091]	
3) 진로심리검사	①	②	③	④	⑤ [Y16S01093]	
4) 진로상담	①	②	③	④	⑤ [Y16S01095]	
5) 진로동아리	①	②	③	④	⑤ [Y16S01097]	
진로 체험	6) 직업인 멘토 특강	①	②	③	④	⑤ [Y16S01099]
	7) 현장 견학	①	②	③	④	⑤ [Y16S01101]
	8) 학과 체험	①	②	③	④	⑤ [Y16S01103]
	9) 현장 직업 체험	①	②	③	④	⑤ [Y16S01105]
	10) 직업 실무 체험	①	②	③	④	⑤ [Y16S01107]
	11) 진로 캠프	①	②	③	④	⑤ [Y16S01109]

54. 현장 체험(견학)의 만족도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Y16S05003]	①	②	③	④	⑤
2) 미래 직업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Y16S05004]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에서의 설명을 이해하기 쉬웠다 [Y16S05005]	①	②	③	④	⑤
4) 현장 체험 이후 전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Y16S05006]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관련 변인

1. 재학 중인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Y16S01001]

- ① 일반고등학교 → 1-1번 문항으로
- ② 자율고등학교 → 1-1번 문항으로
- ③ 특성화고등학교 → 1-3번 문항으로
- ④ 과학고등학교 → 1-3번 문항으로
- ⑤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 1-3번 문항으로
- ⑥ 예술고등학교 → 1-3번 문항으로
- ⑦ 체육고등학교 → 1-3번 문항으로
- ⑧ 마이스터고등학교 → 1-3번 문항으로

27-1.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 취업이나 자격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_____ 개 [Y16S02057]

